

마흔 살 맞은 광주엔시안 ‘행복한 요들송’

8일 전남대에서 기념행사
일주일 두 번 모여 연습
전국 50곳 위문 공연도

광주엔시안요텔클럽(이하 광주엔시안)이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았다. 광주엔시안은 1977년 7월에 창립돼 알프스산맥, 티롤지방에서 불리는 독특한 발성이 특성이 요들을 노래하며, 알프스, 외르젤리, 카우벨 등 알프스 민속 악기 연주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클럽이다.

광주엔시안은 호남지역의 유일한 알프스 민속음악클럽이다. 회원들은 1주일에 2번, 목요일과 토요일, 광주시 광산구 쌍암공원 청소년 수련관에서 모임을 갖는다. 광주엔시안이 처음 만들어진 1977년부터 초창기 회원으로 활동해온 조태익(61)씨는 “21살 때 처음으로 유명 가수 김홍철과 그의 친구들이 YMCA에서 개최한 요들의 밤 강습회에서 요들을 접했다”며 “맑고 고운 자연의 소리인 요들을 여러 사람과 함께하고,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꾸준히 모임에 참여한 것이 어느덧 40년이 됐다”고 말했다.



광주엔시안요텔클럽이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아 8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에서 기념행사를 연다. 지난 2014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연 합창 공연 모습. <광주엔시안요텔클럽 제공>

이들은 노인주간보호센터, 해피맘요양원 등을 다니면서 공연을 하며, 학교박정소년들을 후원하는 음악회도 여는 등 사회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또, 서울, 대전, 부산 등에서 매년 30~4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공연을 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지역사회와의 문화 나눔 등을 실천하고 있다. 2010~2014년까지 4년 동안은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가 주관한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에 공연단체로 선정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50여 곳을 순회하며 연주회를 열었다.

2014년 10월과 11월 광주충장축제 제2회 창작예술경연대회와 강원도 흥천제2회 전국악기동아리 경연대회에서 각각 동상과 은상을 수상하는 등 연주능력이 인정 받고 있다. 이밖에 스위스 민속예술단, 일본 요들클럽과의 합동공연도 펼치는 등 대외적으로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오는 8일 오후 4시에는 창립 40주년을 기념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5층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엔시안 회장 임진하(여·56)씨는

“광주엔시안 요텔클럽이 탄생한 지 어느덧 40주년이 되었다”며 “여러 선배, 동료 덕분에 오늘의 광주엔시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회원 모두가 틈틈이 시간을 내 실력을 닦아온 정성과 노력이 40년간 이어져 왔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요들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연을 노래하는 것”이라며 “요들이 더욱 널리 퍼져 가족, 친구, 연인 누구나 함께 일상에서 벗어나 즐길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선암사 정상화 위한 호남 결집대회

조계종 무각사서 500명 참여

대한불교조계종은 호남지역 선암사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덕문 스님, 진화 스님)가 6일 오후 2시 광주 무각사에서 호남지역 교구본·말사 주지 연수 및 포살법회(한국불교 교단사 확립과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호남 결집대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법회에는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하여 중앙총무기과 및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과 호남지역 교구본·말사 주지 및 대중스님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 포살법회는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법사로 초청하여 진행된다. 2부는 한국불교 교단사 확립과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호남 결집대회로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의 환영사, 호남지역 선암사 대책위원회 공동위원

장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의 인사말, 총무원장 지승 스님의 격려사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동영상 시청, 선암사 등기소속 경과보고, 교육원장 현승 스님의 기초강연, 선암사 정상화 선언문 채택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선암사의 소유권을 놓고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정부는 1970년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순천시에 위탁했다. 양 종단은 2011년 갈등을 끝내자는 데 합의해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권을 공동 인수했지만, 2014년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태고종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조계종이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서용좌 3년 만의 장편 ‘흐릿한 하늘의 해’

소설가 서용좌(전남대 독문과 명예교수·사진) 교수가 신작 장편 ‘흐릿한 하늘의 해’(푸른 사상)를 펴냈다. 2014년 ‘표현형’ 출간 이후 3년 만에 펴낸 작품에서 작가는 우리사화 대표적 비정규직 중 하나인 시간강사의 삶을 들여다본다. 소설은 공부를 잘해 외국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현실은 ‘지방시’(지방대학 시간강사)를 전전하는 여성이 주인공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주인공이 저자의 전작 ‘표현형’의 서술자 한금실이라는 점이다. 이번 작품 ‘흐릿한 하늘의 해’에선 한금실의 의식이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녀의 삶은 비루하기 짝이 없다. 가진 것은 없고 시간은 넘쳐나는

비정규직 강사의 현실은 막막하고 고달프다. 어느 순간 한금실은 일상의 순간들을 천천히 시작한다. 그녀는 등 장인물이자 서술자로서, 자신과 이웃의 사소한 사건들을 언어화한다. 소설 전편에는 소외되고 배제된 이웃들에 대한 애절한 시선이 깔려 있다. 저자는 한금실이라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빌려 “금을 쓴다는 것은 인생을 그렇게 어설프게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리라”면서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는 다만 근저에 놓인 사람들의 주관적 변형에 불과한 것임을 안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남도 대표 양반집 체험... 전남문화관광재단 방학 프로그램

8일·14일·21일 1박2일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한 달 동안 도내 청소년들이 남도의 종가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남도고택체험 프로그램’을 세 차례 운영한다. ‘남도고택 체험 프로그램’은 종가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전남 종가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전승·발전시키기 위해 남도문예 르네상스 일환으로 종가문화 활성화 사업이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전남 종가를 대표하는 해남 녹우당, 건축학적 가치가 높은 구례 운조루, 호남지방 대표적인 양반집으로 꼽히는 나주 남파고택에서 진행한다. 오는 8~9일에는 나주 남파고택에서 ‘나도 셰프-남도의 맛을 찾아서’를 주제로 종손의 옛날이야기, 남파고택 내림음식과 다도체험, 송편·부꾸미 만들기 등을 체험하고 ‘나도 학생 독립운동가’라는 테마로

국립나주박물관,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등을 탐방한다. 14~15일에는 구례 운조루에서 ‘나도 영상 전문가-포커스 운조루’라는 주제로 리길순 할머니의 이야기보따리, 시나리오 작성법 및 드론 조작체험, 운조루 관련 영상물 제작, 운조루 생활일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담양 미암박물관을 찾아 조선 중기 문신 미암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통해 과거 문물세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21~22일에는 해남 녹우당에서 ‘나를 바꾸는 방법-마음가짐’을 주제로 해남 운씨 역사 인물 이야기, 녹우당 탐방을 한 뒤 시·시화·산문으로 나를 표현해 보기, 예절지도, fun한 삶 강의, 해남 관광명소 투어 등 마음가짐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된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문화관광재단의 ‘남도고택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 구례 운조루.

‘제2회 나눔음악회’ 13일 유·스퀘어 문화관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이하 APS Synchronia)이 광주 시민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한 제2회 나눔음악회 ‘클래식, 바로크에서 탱고까지’가 13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바이올리스트 겸 지휘자인 진윤일이 지휘봉을 잡은 이번 연주회의 첫 곡은 파헬렐의 ‘캐논’이다. 이어 바흐의 ‘아리오소’가 연주된다. ‘아리오소’는 ‘노래하듯’이라는 뜻이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선율이 돋보이는 곡이다. 이어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 1악장, 베토벤의 ‘그대를 사랑해’, 슈베르트 ‘아베마리아’,

‘세레나데’ 등 총 12곡이 연주되며 마지막 무대는 영화 ‘여인의 향기’에 사용된 탱고가 수 겸 작곡가인 카를로스 가르델의 ‘간발의 차이’로 채워진다. 총 20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아카데미 열정과 나눔은 서울, 경기도 양평, 무안 등 전국을 다니며 다채로운 공연들을 선보이고 있다. 전석 초대 관람문의 010-6331-6834.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실, 20인실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